

내부역량 및 외부자원활용역량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수도권 소재 여부의 조절효과 검증

주진영(탭엔젤파트너스 이사)

< 목 차 >

I. 서 론	IV. 실증 분석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4-1. 기술통계
2-1. 내부 역량과 경영성과	4-2.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2-2. 외부자원 활용 역량과 경영성과	4-3. 수도권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
2-3. 경영성과	V. 결론 및 제언
2-4. 수도권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	5-1. 연구 결과 요약
III. 연구 방법	5-2. 시사점
3-1. 연구표본	5-3. 한계점
3-2. 분석방법	참고문헌
	Abstract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비수도권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지방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함에 있다. 연구 데이터는 한국벤처기업협회의 2020년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 1,173개, 비수도권 788개, 전체 1,961개기업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창업자특성, 내부 역량, 외부자원활용역량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력을 수도권 소재 여부가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도권 소재 여부에 조절효과는 경쟁사대비 마케팅 역량이 경영성과에 양(+)의 효과가 있는 것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비수도권의 각 지역별 주력 산업군 기반 판로개척 및 마케팅 프로그램 정책 도입 및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키워드 : 벤처기업, 경영성과, 수도권소재여부, 내부역량, 외부자원활용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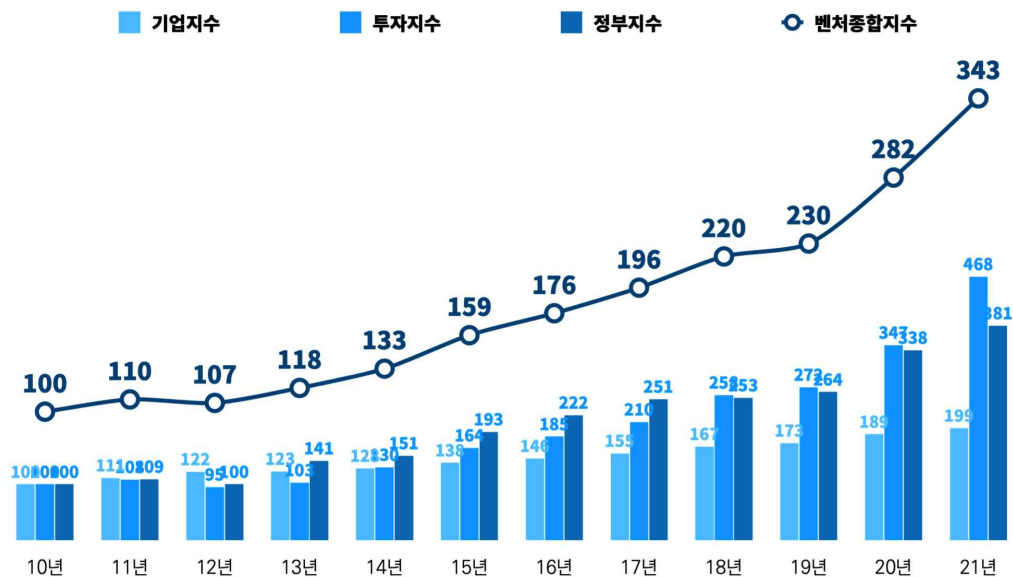
• 논문투고일 : 2022-10-10. • 수정일 : 2022-10-17. • 게재확정일 : 2022-10-30.

* 주저자, 탭엔젤파트너스 이사, jujir@naver.com

I. 서 론

2022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창업·벤처생태계 종합지수를 발표하였는데 2021년 창업·벤처생태계 종합지수는 343으로 2010년 기준 3.4배 성장하였고 2021년 기준으로는 1.2배 성장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22). 본 종합지수 모형은 생태계의 주요 주체인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정부를 대상으로 한 세부지수인 기업, 투자, 정부지수로 구성됐으며 각 세부지수값은 종합주가지수 방식을 활용해 기준연도인 2010년 지수값을 100으로 설정하고 2021년까지 개별 연도별로 산출한다(김선우 외, 2021).

〈그림1〉 국내 벤처생태계 종합지수



또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분석기관인 미국 ‘스타트업 지놈 (Startup Genome)’ 이 전 세계 100개국, 280개 도시 대상으로 글로벌 창업생태계 순위를 발표하였는데 수도권의 핵심인 서울 창업 생태계는 글로벌 창업생태계 랭킹에서 16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서울의 강점으로 우수한 인재와 높은 R&D 투자금액을 꼽았으며 특히 기술개발 연구실적·특허로 평가하는 ‘지식축적’ 분야에서는 글로벌 4위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지방벤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지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것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벤처 기업이 56.7%가 늘어나

는 동안 지방은 32.1% 늘어나, 수도권 벤처기업의 비율은 2011년 56.7%에서 2021년 60.8% 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기업가치 1,000억 이상의 아기유니콘 기업 100곳 중 88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투자유치 실적이 20억에서 100억 미만의 수혜 경험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되는 예비유니콘 57곳 중 50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질적으로도 그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년간 신규벤처투자 금액은 1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었지만, 수도권 투자금액 비율은 2020년 78.2%로 수도권에 약 80% 집중돼 있었다. 또한 벤처기업을 키워 낼 수 있는 벤처 캐피탈의 91.3%, 창업지원 액셀러레이터도 66.4%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벤처기업의 매출액 격차 또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기본 정책 기반 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방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소외현상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김태현, 2022). 지방벤처기업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는 지방벤처기업 및 전문가의 설문조사·인터뷰 기반의 지방벤처생태계 활성화의 성공요인에 집중되어 있다. 안태욱·강태원·이미경(2020)은 AHP연구기법을 통해 지방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성공요인 도출 연구를 통해 창업자 특성,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자금, 창업인프라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변필성(2011)은 지방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활용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채지민·이원호(2017)는 지방벤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벤처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태현(2022)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방법(SER-M)을 활용한 지방 벤처생태계에 대한 성장 요인 연구를 통해 창업 제도전 지원정책, 지방투자펀드, 창업교육 확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기존 선행연구는 지방벤처기업 및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인터뷰 기반의 지방 벤처생태계 성공요인 도출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지방벤처기업의 실제 경영성과를 기반으로 한 연구 및 벤처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수도권 벤처기업과의 비교연구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벤처생태계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기반의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지방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지방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1 내부역량과 경영성과

‘자원기반’이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Wernerfelt(1984)의 연구에서부터였는데, 그는 기존의 제품-시장 성과의 관계를 내부자원-시장 성과의 관계로 전환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내부 자원 수준의 연구가 기업의 성장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신형덕, 2019). 기업의 내부자원은 유형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의 경우 제한적인 유형자산 보유로 유통네트워크, 제조역량, R&D역량, 마케팅역량 등의 무형자산이 재무적 성과에 더욱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Hunt and Robert, 1995). 특히 이러한 벤처기업의 내부 무형자산 중 R&D 역량과 마케팅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R&D 인력 비중이 높을수록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김윤정 외, 2018) 마케팅, 상품개발, 서비스관리 역량 등 마케팅과 관련된 역량이 높을수록 비재무적 및 재무적 경영성과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구정대, 2009). 또한 다른 내부 역량과 비교하여 마케팅 노력을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할수록 기업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Christensen, 1997; Drucker, 1985). 또한 마케팅 및 제품개발능력, 제품의 신뢰성, 경쟁대응력 중에서 제품개발능력 및 신뢰성이 뛰어나도록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재무적 성과가 높다는 결과의 연구도 있다(최이규·이수형, 2001). 이렇듯 기존 선행연구에서 내부역량 중 R&D역량 및 마케팅 역량의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벤처기업의 내부역량과 재무적 성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1 : 벤처기업의 내부역량은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가설1-1 : 벤처기업의 R&D 역량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가설1-1-1 : 산업재산권 보유건수는 경영성과에 (+)의 효과를 미친다.

가설1-1-2 : 경쟁사대비 개발역량은 경영성과에 (+)의 효과를 미친다.

가설1-2 : 벤처기업의 마케팅 역량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가설1-2-1 : 마케팅 및 영업인력 비중은 경영성과에 (+)의 효과를 미친다.

가설1-2-2 : 경쟁사대비 마케팅역량은 경영성과에 (+)의 효과를 미친다.

2.2 외부자원활용역량과 경영성과

내부자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벤처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외부 활용 가능한 자원이 늘어나고 있고 외부자원의 활용은 경영성과와 생존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Timmons, 1994). 이러한 외부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업은 기업의 성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Dowling and McGee, 1994). 황정태(2010)는 벤처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의 협력이 혁신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양동우·박다진(2009)은 기업과 기업 간 협업이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협력보다 성과가 더 높다고 분석하였다. 조금제·전인오(2017)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동과 경영 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은 비재무적 경영성과와 재무적 경영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국내 벤처 생태계의 특징 중 하나는 정부지원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점인데 특히 벤처기업의 본질적 특성인 고위험과 높은 정보비대칭성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정부는 정책지원자금을 통해 자금이 유입되도록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김건우·서병철, 2010). 벤처 기업들이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을 경우 기술 혁신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내부 투자와 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Gans and Stern, 2000). 이 중 벤처캐피탈의 성과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들보다 높은 성과를 보인다고 하였다(이기환 외, 2000; 이진주 외, 1993; Chrisman and Leslie, 1989; Gompers, 1995; Lerner, 1994).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벤처기업의 외부자원활용역량과 경영성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2 : 벤처기업의 외부자원활용역량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가설2-1 : 정부정책자금 수혜가 많을수록 경영성과에 (+)의 효과를 미친다.

가설2-2 : 외부협력경험이 많을수록 경영성과에 (+)의 효과를 미친다.

가설2-3 : 외부기관투자가 높을수록 경영성과에 (+)의 효과를 미친다.

2.3 경영성과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기업의 매출, 수익성 또는 성장성과 같은 재무적 성과를 경영성과 측정변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성과 측정에 객관적이며 동일한 산업 내에서 당분간 그 효과를 유지하는 데 장점은 있지만, 수익성과 성장성의 경우 이를 측정하는 지표가 서로 다른 회계 처리를 하고 있어 단순한 성과치의 비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구정대, 2009). 비재무적 경영성과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객관화가 어렵고 측정의 범위가 넓어 경영성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조금제,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성과 중 매출액을 경영성과로 측정하고자 한다.

2.4 수도권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

안태욱(2020)은 비수도권의 창업생태계가 수도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과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창업생태계의 형성과 구축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를 위해 각 지역 대학들과 협력하여 지역 거점도시와 지방 소도시를 연계하는 구체적인 창업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채지민·이원호(2017)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과 차이의 근본 원인을 열악한 지방 창업생태계로 보았고 지방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벤처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역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정성민(2008)은 국내 지방 벤처기업의 실패요인에 관한 탐색적 사례 연구를 통해 자본, 인력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에 소재한 벤처기업들은 수도권 벤처기업들과 매우 다른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성과 차이가 발생하며 주요 실패 요인은 정보를 풍부하고 신속하게 획득하여 대처하는 시장지향성, 경영전략 및 마케팅전략 부재, 지나친 CEO 중심 경영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성과 차이는 현재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검증하고자 벤처기업 소재지 연구대상의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벤처기업 소재지에 따른 매출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234, p<.05$). 수도권에 소재한 벤처기업의 매출액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벤처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 수도권 · 비수도권 소재지에 따른 경영성과 차이

변수	구분	N	M	SD	t	p
매출액(log)	수도권	1,173	4.12	0.74	2.234*	.026
	비수도권	788	3.73	0.79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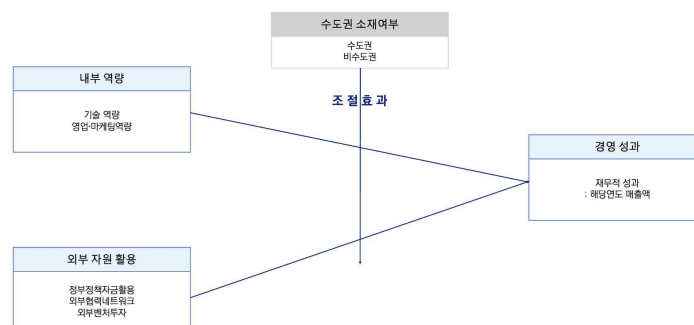
이러한 경영성과의 통계적 유의 차이를 기반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차이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조절변수인 수도권 여부를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통해 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3 : 수도권 소재 여부는 내부역량, 외부자원활용역량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가설3-1 : 수도권 소재 여부는 산업재산권보유건수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2 : 수도권 소재 여부는 경쟁사대비 개발역량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3 : 수도권 소재 여부는 마케팅 및 영업 인력 비중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4 : 수도권 소재 여부는 경쟁사대비 마케팅역량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가설3-5 : 수도권 소재 여부는 정부정책자금수혜금액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6 : 수도권 소재 여부는 외부협력경험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7 : 수도권 소재 여부는 외부기관투자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그림2〉 연구모형



Ⅲ. 연구 방법

3.1 연구표본

본 연구를 위해 법인기업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 1,961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기업 소재지는 수도권 1,173개(59.8%), 비수도권 788개(40.2%)로 나타났으며, 대표이사 연령은 20대 이하 62명(3.2%), 30대 677명(34.5%), 40대 864명(44.1%), 50대 307명(15.7%), 60대 이상 51명(2.6%)으로 나타났고, 대표이사 최종학력은 전문학사 126명(6.4%), 대졸 1221명(62.3%), 석사 401명(20.4%), 박사 213명(10.9%)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이사 성별은 남 1,870명(95.4%), 여 91명(4.6%)으로 나타났다. 업종 기준으로는 에너지·화학·정밀·의료·제약·컴퓨터·반도체·통신기기 등의 첨단제조는 696개(35.5%), 기계·자동차·금속·섬유 등의 일반제조는 435개(22.2%),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정보통신 등의 첨단서비스는 449개(22.9%), 도소매 등의 일반서비스는 381개(19.4%)로 나타났다. 기업성장단계는 창업기 32개(1.6%), 초기성장기 336개(17.1%), 고도성장기 713개(36.4%), 성숙기 880개(44.9%)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N	%
소재지	수도권	1,173	59.8
	비수도권	788	40.2
대표이사 연령	20대 이하	62	3.2
	30대	677	34.5
	40대	864	44.1
	50대	307	15.7
	60대 이상	51	2.6
대표이사 학력	전문학사	126	6.4
	대졸	1,221	62.3
	석사	401	20.4
	박사	213	10.9
대표이사 성별	남	1,870	95.4
	여	91	4.6

항목	구분	N	%
업종	첨단 제조	696	35.5
	일반 제조	435	22.2
	첨단 서비스	449	22.9
	일반 서비스	381	19.4
성장단계	창업기	32	1.6
	초기성장기	336	17.1
	고도성장기	713	36.4
	성숙기	880	44.9
전체		1,961	100.0

3.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연구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산출하였다. 둘째, 내부 역량, 외부 자원 활용 수준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Simple line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내부 역량, 외부 자원 활용 수준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력을 수도권 여부가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이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실증 분석

4.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연구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표이사 실무경험 년 수의 평균은 10.24년으로 나타났고, 업력은 13.17년으로 나타났다. 기술역량의 평균은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13.37건, 경쟁사대비 개발역량은 5점 만점에 3.73점으로 나타났다. 영업마케팅역량의 평균은 마케팅 및 영업 인력 비중 12.98%, 경쟁사 대비 마케팅역량은 5점 만점에 3.30점으로 나타났다. 외부자원의 평균은 정부정책자금 합계 1억 9589만 원, 외부협력 경험건수 0.48건, 외부기관투자자 지분 비중 17.11%로 나타났다.

내부역량 및 외부자원활용역량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한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산출하였다. 왜도는 절댓값 3 미만, 첨도는 절댓값 10 미만이면 정규분포에 근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Kline, 2016),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정부정책자금 합계의 왜도와 첨도가 기준 범위를 벗어나 이후 분석에서는 상용로그변환하여 투입하였다.

〈표 2〉 기술통계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내부역량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0.00	230.00	13.37	25.08	4.32	24.39
	경쟁사대비 개발역량	1.00	5.00	3.73	0.66	-0.33	0.39
	마케팅 및 영업 인력 비중	0.00%	100.00%	12.98%	11.70	1.78	5.60
	경쟁사 대비 마케팅역량	1.00	5.00	3.30	0.70	-0.23	0.44
외부자원	정부정책자금 합계	0.00	20000.00	195.89	769.27	13.42	270.21
	외부협력 경험건수	0.00	5.00	0.48	0.79	1.65	2.40
	외부기관투자자 지분 비중	0.00%	100.00%	17.11%	25.16	1.40	0.92

4.2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F=66.706(p<.001)$ 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약 41.9%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44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경쟁사 대비 마케팅 역량, 외부기관투자자 지분 비중은 매출액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쟁사대비 개발역량은 매출액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재산권 보유건수가 많을수록, 자사의 경쟁사 대비 마케팅역량이 높다고 판단할수록, 외부기관투자자 지분 비중이 높을수록 매출액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고, 경쟁사대비 개발역량이 높다고 판단할수록 매출액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경쟁사 대비 마케팅역량($\beta=.215$, $p<.001$), 외부기관투자자 지분 비중($\beta=.160$, $p<.001$), 산업재산권 보유건수($\beta=.104$, $p<.001$), 경쟁사대비 개발역량($\beta=-.051$, $p<.05$), 순으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0.139	0.029	0.104	4.781***	<.001	1.576
경쟁사대비 개발역량	-0.059	0.025	-0.051	-2.335*	.020	1.587
마케팅 및 영업 인력 비중	-0.001	0.001	-0.012	-0.666	.505	1.074
경쟁사 대비 마케팅역량	0.233	0.023	0.215	9.962***	<.001	1.556
정부정책자금 합계	0.001	0.011	0.002	0.089	.929	1.053
외부협력 경험건수	-0.018	0.018	-0.018	-0.971	.332	1.188
외부기관투자자 지분 비중	0.005	0.001	0.160	8.808***	<.001	1.107

F=66.706(p<.001), R²=.419, adjR²=.413, Durbin-Watson=1.944

1) 더미변수: CEO 연령(20대 이하=0), CEO 학력(고졸 이하=0)
 * p<.05 ** p<.01 *** p<.001

4.3 수도권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

벤처기업의 내부 역량, 외부 자원 활용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도권 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1에서는 독립변수인 내부 역량, 외부 자원 활용과 조절변수인 수도권 여부를 투입하였고, Model 2에서는 독립변수와 수도권 여부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Model 1의 설명력은 42.5%로 나타났다(F=68.235, p<.001), 독립변수 중 산업재산권 보유건수($\beta=.104$, p<.001), 경쟁사 대비 마케팅역량($\beta=.219$, p<.001), 외부기관투자자 지분 비중($\beta=.152$, p<.001), 조절변수인 수도권(수도권 소재)($\beta=.083$, p<.001)은 매출액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사대비 개발역량($\beta=-.049$, p<.05)은 매출액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수도권 여부의 조절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Model 2의 설명력은 Model 1보다 2.1% 증가하여 전체 44.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37.725, p<.001). 독립변수 중 산업재산권 보유건수($\beta=.106$, p<.001), 경쟁사 대비 마케팅역량($\beta=.211$, p<.001), 외부기관투자자 지분 비중($\beta=.146$, p<.001)이 매출액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쟁사대비 개발역량($\beta=-.048$, p<.05)이 매출액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

내부역량 및 외부자원활용역량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변수인 수도권(수도권 소재)($\beta=.084$, $p<.001$)이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 중에는 마케팅 및 영업 인력 비중과 수도권($\beta=.080$, $p<.001$), 경쟁사 대비 마케팅역량과 수도권($\beta=.051$, $p<.05$)이 매출액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에서 경쟁사 대비 마케팅역량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경쟁사 대비 마케팅역량과 수도권 여부의 상호작용항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므로, 경쟁사 대비 마케팅역량과 매출액의 관계에서 수도권 여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경쟁사 대비 마케팅역량이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일수록 매출액에 대한 정(+)의 영향이 강화되는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 수도권 여부의 조절효과 검증

독립변수	Model 1		Model 2	
	β	t	β	t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0.104	4.828***	0.106	4.924***
경쟁사대비 개발역량	-0.049	-2.278*	-0.048	-2.227*
마케팅 및 영업 인력 비중	-0.015	-0.850	-0.016	-0.922
경쟁사 대비 마케팅역량	0.219	10.204***	0.211	9.815***
정부정책자금 합계	0.004	0.200	0.004	0.221
외부협력 경험건수	-0.015	-0.795	-0.013	-0.674
외부기관투자자 지분 비중	0.152	8.335***	0.146	8.006***
수도권(수도권 소재)	0.083	4.626***	0.084	4.706***
산업재산권 보유건수×수도권			0.008	0.394
경쟁사대비 개발역량×수도권			-0.032	-1.513
마케팅 및 영업 인력 비중×수도권			0.080	4.474***
경쟁사 대비 마케팅역량×수도권			0.051	2.391*
정부정책자금 합계×수도권			0.010	0.559
외부협력 경험건수×수도권			0.018	0.988
외부기관투자자 지분 비중×수도권			0.008	0.456
R ² (adj R ²)	.425(.419)		.446(.434)	
ΔR^2	-		.021	
F	68.235***		37.725***	

1) 더미변수: CEO 연령(20대 이하=0), CEO 학력(고졸 이하=0), 수도권(비수도권=0)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5.1 연구 결과 요약

내부역량 관점에서는 산업재산권보유건수와 경쟁사비 마케팅역량은 경영성과에 양(+)의 영향을 주어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마케팅 및 영업인력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고, 경쟁사대비 개발역량은 경영성과에 음(-)의 영향을 주어 기존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케팅 및 영업인력 비중이 기각된 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관리해야 하는 자원이 많아져 이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만큼 경영지원, Risk 관리 등 관리 인력의 필요성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사대비 개발역량이 높다고 판단할수록 매출액이 낮아지는 이유는 인적 자원이 제한적인 벤처기업의 경우 사업성장단계에 따른 조직의 탄력적 운영이 중요하고 본격 사업화 이후에는 사업화에 관련된 마케팅 역량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데 기술 중심의 회사의 경우 개발역량 유지 및 확대에 집착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 성장 단계에 맞는 조직 운영 역량 부족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외부자원활용역량 관점에서 정부정책자금 수혜 및 외부협력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고 외부기관투자는 기존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경영성과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외부협력경험의 기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외부협력 프로그램이 수동적이고 단기의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이 능동적으로 외부협력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벤처기업이 주도하여 창업 초기 스타트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5〉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 가설검증 결과

구분	가설	채택여부
가설1	벤처기업의 내부역량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1-1-1	산업재산권 보유건수는 경영성과에 (+)의 효과를 미친다.	(+) 영향
1-1-2	경쟁사대비 개발역량은 경영성과에 (+)의 효과를 미친다.	(-) 영향
1-2-1	마케팅 및 영업인력 비중은 경영성과에 (+)의 효과를 미친다.	기각
1-2-2	경쟁사대비 마케팅역량은 경영성과에 (+)의 효과를 미친다.	(+) 영향
가설2	벤처기업의 외부자원활용역량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내부역량 및 외부자원활용역량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1	정부정책자금 수혜가 많을수록 경영성과에 (+)의 효과를 미친다.	기각
	2-2	외부협력경험이 많을수록 경영성과에 (+)의 효과를 미친다.	기각
	2-2	외부기관투자가 높을수록 경영성과에 (+)의 효과를 미친다.	(+)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검증에 위한 수도권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경쟁사대비 마케팅 역량이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일수록 매출액의 증가효과는 더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수도권 벤처 인프라에 가장 대표적인 우위점으로 이야기하는 외부협력네트워크, 투자 인프라에 관련된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요컨대 수도권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는 경쟁사대비 마케팅 역량이 경영성과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수도권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 가설검증 결과

구분	가설	채택여부
3-1	수도권 소재 여부는 산업재산권보유건수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3-2	수도권 소재 여부는 경쟁사대비 개발역량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3-3	수도권 소재 여부는 마케팅 및 영업 인력 비중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효과
3-4	수도권 소재 여부는 경쟁사대비 마케팅 역량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효과
3-5	수도권 소재 여부는 정부정책자금수혜금액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3-6	수도권 소재 여부는 외부협력경험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3-7	수도권 소재 여부는 외부기관투자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5.2 시사점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지방 벤처 생태계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벤처기업 수, 투자유치 인프라, 외부협력네트워크 등 외형적인 인프라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영성과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경쟁사대비 마케팅 역량인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경쟁사대비 마케팅 역량에 관련해서는 비수도권 벤처기업이 국내외 판로 개척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를 위해 각 지방 지자체 중심의 주력 산업군에 대한 해외 바이어 유입을 위한 전시회 개최, 이를 기반으로 한 국내외 바이어와의 판로개척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으로 판로개척과 마케팅 역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정책 도입 및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많은 비수도권의 벤처기업은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벤처 기업 주도의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외부 협력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한데 현재 외부협력 프로그램이 단기적이고 수동적이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해당 지방 벤처 기업이 창업 초기 스타트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업의 현안을 반영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지방 지자체 및 창업 유관기관이 이것을 취합하여 해당 지방 지역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프로그램화하여 홍보 및 지방벤처기업과 초기 스타트업과의 연계를 담당하고 이에 관련된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분업적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 중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프로그램의 경우 대기업 등 민간에서 제시하는 혁신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선발하여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에게 사업화자금, 기술개발 및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대기업과의 혁신과제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데 실질적인 사업화 및 혁신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각 지방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5.3 한계점

본 연구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실질적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벤처기업 및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 기반의 성공요인 도출 중심의 연구와 달리 실질적인 지방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데 차별화가 있다 할 수 있겠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기반으로 분석되었기에 한해 경영성과에 관해서만 국한되었다. 좀 더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시계열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업종별 현황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4개의 대구분, 10개의 소구분 업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업종별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더 많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부역량 및 외부자원활용역량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셋째, 기업의 성장단계별 구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조사는 기업의 성장단계를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김태현(2022). 지방 창업생태계 성장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시스템 사고에 의한 접근,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23(1), 105-133.
- 김선우 · 진우석 · 광기현 · 고현진(2021). 창업 · 벤처 생태계 측정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6(6), 31-42.
- 이영훈 · 송유진(2021). 첨단제조 벤처기업의 외부적 협력활동 경험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내부 핵심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6), 69-84.
- 안태욱 · 강태원 · 이미경(2020).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창업생태계 성공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23(2), 91-105.
- 이영훈 · 이영구(2020). 정부자금지원 수혜경험이 제조 벤처기업의 내부역량과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장단계와 제조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경영리뷰**, 11(4), 105-124.
- 신형덕(2019). 자원기반이론의 흐름과 이슈, **전략경영연구**, 22(1), 1-16.
- 박다인 · 박찬희(2018).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업경쟁력 및 기업 성과 창출 전략, **벤처창업연구**, 13(6), 177-189.
- 김윤정 · 서운교 · 홍정임(2018). 벤처기업의 내부역량과 성장단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정부 지원자금 활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1(2), 636-662.
- 채지민 · 이원호(2017). 기술창업생태계 분석 및 구축방안 : 성남시 사례연구, **국토지리학회지**, 51(1), 81-82.
- 김정호 · 한정희(2014). 제품 전략과 CEO 특성이 벤처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차별화된 효과 : 조직수명주기 단계의 조절효과, **기술혁신연구**, 22(1), 81-82.
- 김종운(2012). 벤처기업의 외부협력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학회지**, 15(3), 533-556.
- 변필성(2011). 지방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 성장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활용,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1), 86-98.
- 강원진 · 이병현 · 오왕근(2011).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외부자원 활용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7(1), 35-45.
- 정성민 · 조성도 · 김경은 · 문연희(2008). 국내 지방 벤처기업의 실패요인에 관한 탐색적 사례 연구, **벤처경영연구**, 11(4), 91-113.
- 최홍봉 · 윤성민(2004). 벤처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1),

29-43.

조금제 · 전인오(2017).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동이 핵심역량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20(2), 5-15.

(2) 국외 문헌

- Anderson, E., & Narus, J.(1990). A Model of Distributor Firm and Manufacturer Firm Working Partnerships, *Journal of Marketing*, 42-58.
- Burgelman, R., C. Christensen, and S. Wheelwright(2009).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5th ed., McGraw-Hill.
- Christensen, C.(1997). The Innovator's Dilemma: When New Technologies Cause Great Firms to Fail.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Christensen, C. and R. Raynor(2003). The Innovator's Solution: Creating and Sustaining Successful Growth.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Chrisman, J. J. and Leslie, J.(1989). Strategic, Administrative, and Operating problems: The Impact of Outsiders on Small Firm Performance,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13(3), 15-28.
- Dowling, M. J. and McGee, J. E.(1994). Business and Technology Strategies and New Venture Performance: A Study of the Telecommunication Equipment Industry, *Management Science*, 40, 1663-1677.
- Dyer, J. H. Gregersen, and C. Christensen(2011). The Innovator's DNA,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 Gompers, P. A.(1995). Optimal Investment, Monitoring, and the Staging of Venture Capital, *Journal of Finance*, 50, 1461-1489.
- Hunt, S. D. and Robert, M. M.(1995). "The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of Competition" , *Journal of Marketing*, 59(2): 1-15.
- Lerner, J.(1994). Venture Capitalists and the Decision to Go Public, *Journal of Finance Economics*, 35, 293-316. Lerner, J.(1995). Venture Capitalists and the Oversight of Private Firms, *Journal of Finance*, 50, 301-318. Lerner, J.(1999). The Government as Venture Capitalist: the Long-run Impact of the SBIR Program, *Journal of Business*, 72, 285-318.

- Wernerfelt, B. A. (1984). “A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5(2): 171-180.
- Wallsten, S. J. (2000). “The Effects of Government-Industry R&D Programs on Private R&D: The Case of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31(1): 82-100.

<ABSTRACT>

Differences in the impact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loc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JinYoung 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ractical policy for revitalizing the local venture ecosystem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the impact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venture companies i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The study data were used by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s 2020 detailed survey on venture companies, and panel data of 1,173 metropolitan areas, 788 non-metropolitan areas, and 1,961 companies were analyz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impact of startup characteristics, internal capabilities, and external resource utilization capabilities. Through this, it was deriv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n the loc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marketing capabilities compared to competitors, and it is suggested that policies should be strengthened around this.

Keywords : Local ventures, Venture companies, management performance

* First author, executive director, Tap Angel Partners, jujir@naver.com